



서재응·한승혁·앤서니 등 노련미와 강속구로 타선 '핑크' 묶어

KIA 서재응이 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마운드 'SUN의 향기'

서재응·한승혁·앤서니 등 노련미와 강속구로 타선 '핑크' 묶어

시범경기 넥센전 3-0 영봉승

KIA 마운드의 구색맞추기에 속도가 붙었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서 1회 4개의 안타로 3점을 뽑아내며 3-0 승리를 거뒀다.

KIA는 이용규의 내야안타로 시작된 1회 초 공격에서 홍재호·안치홍의 연속안타로 선취점을 기록했다. 이어진 2사 2·3루의 기회에서는 김원섭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3-0으로 일찍감치 승기를 잡았다.

노련미와 강속구, 좌완·우완이 조화를 이룬 마운드가 돋보였다.

서재응을 선발로 내세운 KIA는 김희걸·한승혁·오준형·진해수·앤서니를 나란히 마운드에 올리며 넥센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서재응은 1회 2사에서 이택근·박병호에게 연속안타를 맞았지만 조중근을 1루수 앞 땅볼로 돌려세우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2회에도 2사 만루의 위기를 맞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3회 이택근·박병호-조중근으로 이어지는 넥센의 클린업 트리오를 상대로 3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노련함을 과시했다.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서재응은 "날이 추워서 체인지업 밸런스가 맞지 않아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투구 내용은 만족스럽다"며 "이렇게 빨리 몸이 준비된 것은 처음이다. 팀의 우승과 두 자릿 승수를 위해 준비를 잘했다"고 밝혔다.

우완 기대주 한승혁과 좌완 기대주 진해수도 깔끔한 피칭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승혁은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151km의 직구를 뿌리며 KIA 강속구 군단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승혁은 6회말 첫 타자 강정호에게 우전안타를 맞았지만 오재일·김민우를 상대로 탈삼진 두 개를 기록하는 등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 지었다.

8회 등판한 진해수는 첫 타자에게 볼넷을



한승혁



앤서니

내주기는 했지만 강정호를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한 뒤, 오재일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마운드를 내려갔다.

3-0으로 앞선 9회말 마무리로 출격할 앤서니도 첫 타자에게 안타를 내줬지만 세 타자를 버타로 돌려세우며 세이브를 기록했다.

마운드의 순항 속에 부상병 한기주·심동섭의 복귀도 임박하면서 KIA 마운드의 구색맞추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일 심동섭에 이어 21일 한기주가 두 번째 라이브 피칭을 앞두고 선동열 감독의 마운드 구상에 주요 카드인 두 선수의 복귀가 임박했다.

부상에서 벗어난 심동섭과 한기주는 이번 주말 시범경기에 출격해 실전피칭을 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스카우팅리포트 발간



현직 야구 전문가들이 집필한 2012 프로야구 스카우팅리포트가 발간됐다.

(주) 지식프레임이 발간한 스카우팅리포트에는 프로야구 주요 선수 208명을 비롯한

등록선수 492명의 프로필이 담겨져 있다. 포켓 사이즈로 휴대가 편하고, 그래픽을 통해 투수들의 피칭존과 타자들의 타구 방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구단 역사, 2011시즌 팀 스탯 등과 함께 올 시즌 신인과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실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제주전 K리그 3라운드 '베스트 매치'

주앙파울로 베스트 11 선정

수비의 버저버터 역전골이 터진 광주 FC의 3라운드 경기가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광주의 대역전극 속에 펠레스코어로 끝난 광주와 제주의 경기를 2012 K리그 3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지난 1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47분에 터진 수비의 극적인 역전골로 3-2 승리를 거뒀

다.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한 광주의 특급 공격수 주앙파울로는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앞선 1라운드에서 베스트 11에 선정됐던 주앙파울로는 'K리그 최고의 조커로 광주 역전의 발판을 제공 했다'는 평가와 함께 올 시즌 두 번째 베스트 11의 영광을 안았다.

3라운드 최우수선수는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생애 첫 헤트트리를 달성한 울산 공격수 이근호에게 돌아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2 K리그 오퍼셜 가이드' 발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등록선수 612명의 정보가 담긴 '2012 K리그 오퍼셜 가이드'를 발간했다.

오퍼셜 가이드에는 16개 구단 코칭스태프와 등록선수 612명의 사진, 개인별 프로필, 2011년 K리그 기록과 통산 기록, 국가대표 팀 기록, 별명, 좌우명 등이 담겨 있다.

팀 전술과 2012년 팀 목표 등도 수록되어 있으며 최근 10년간 성적, 구단 연혁 등을 통해 각 선수단 변화를 알 수 있게 했다.

전국 16개 축구장을 찾아가는 교통편, 입장권, 서포터즈 정보와 K리그 선수들의 트위터 주소도 기재 됐다. 판매 가격은 1만4500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9인제 배구 최강 가린다

시체육회장배 24·25일 영주실내체육관

클럽부 등 54개팀 1000여명 참가 '열전'

2012 광주시체육회장배 9인제 배구대회가 24·25일 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시 9인제 배구연맹(회장 박길재·사진)이 주최하고 광주시 배구협회·(주)다빈 위택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자모부, 남·여클럽부, 교직원부, 장년부 등 54개팀 1000여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다.

대회는 24일 오전 9시 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며 조별리그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각 조 1·2위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다투게 된다. 경기는 한국 9인제 연맹 경기방식으로 진행되며 1·2세트는



21점, 3세트는 15점이다.

우승팀에게는 상금 50만원과 트로피, 준우승과 공동 3위에게는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각 부별 최우수선수와 남·여 심판 각 1명에게 기념패가 주어지는 등 개인 시상도 이뤄진다.

9인제 배구 축제 한마당을 기념한 푸 집한 경품도 준비됐다.

추첨을 통해 드림세탁기·청소기·전자렌지·프로배구 연맹 선수 사인볼 등이 경품으로 지급된다. 또 각 참가팀에게 오는 6월 22~24일 광주에서 열리는 배구월드리그 티켓이 증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와인&시네마열차 운행(새마을호당일)

새마을호를 개조해서 만든 "와인, 시네마 열차"로 와인 무제한 제공과 와인강좌, 추억의 7080음악과 함께하는 신나는 레크레이션, 최신개봉영화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차상품.

3월25일(일), 3월31일(토)
09:20 광주역 출발
 직지사 관광/24가지의 산채정식/와인코리아 견학
1인당 ₩110,000 원
 ※기차여행은 각역에서도 접수가능 합니다.

화이트 와인, 레드드라이, 레드스위트, 복분자 와인, 와인네가지 무제한 제공 **최신개봉영화 상영!**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섬여행

1박2일	홍도/흑산도	₩169,000원~
2박3일	울릉도/독도	5월 3일, 17일 ₩365,000원~ 5월 11일, 25일 ₩385,000원~
1박2일	한라산등반·올레길 블루나래호	₩120,000원~
1박2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40,000원~
2박3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60,000원~
1박2일	보길도/청산도	₩160,000원~

해외여행

2일	대마도 크루즈	₩239,000원~
5일	후쿠오카 크루즈	₩580,000원~
5일	태항산/태산 KE	₩990,000원~
6일	태항산 위동훼리(매주목)	₩650,000원~
4일	청도 위동훼리(매주토)	₩330,000원~
5일	청도/장보고유적지 위동훼리(매주목)	₩450,000원~
5일	청도/태산/곡부 위동훼리(매주화)	₩460,000원~
5일	장가계 MU	₩1,200,000원~
4일	장가계 MU	₩1,100,000원~
4일	항산 MU	₩670,000원~